

'다이로움 한끼밥상' 개업

익산시, 복지부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지원사업 선정... 보조금 1억7200만원 투입

익산시가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식사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일 다(多)이로움 한끼밥상'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다(多)이로움 한끼밥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지원 사업에 선정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1억 72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수행기관인 익산시니어클럽(관장 백종환)을 포함한 전국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날 개업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 사회복지법 인삼동회 관계자, 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 본부장, 시니어클럽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

다.

2층으로 조성된 다이로움 한끼밥상의 1층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제조 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에서는 기관·단체 회의실 대여 및 다과·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업에 앞서 영등1동 등 10개 지역의 독거노인 재가도시락 및 밀بان 배달 사업 계약을 완료했으며, 익산시 의료 재가지원사업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익산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운영했던 '잡맛연장 소담'과 통합 먹거리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로 근로 능

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어르신 8명에게 인생의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르신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의 손맛이 담긴 도시락과 반찬을 제공하고 회의실이 부족한 단체에 장소를 대여해 줄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니어클럽은 익산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경로당 문화 지원 등 13개 사회서비스형 사업과 취약지 도시재생 등 8개 공익형 사업, 그린뉴딜 지원 등 7개 시장형 사업을 수행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의 권리증진과 세정 민족도 향상에 나선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지원

익산시, NH농협은행·전북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의 권리증진과 세정 민족도 향상에 나선다.

시는 20일 시금고인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납부액 500만 원(법인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재정확충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된다.

시는 2월 중 성실납세자 70여명을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는 두 금

육기관에서 금리우대 및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익산시는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도 기획안전국장은 "성실납세자에게 명예와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하고자 하는 이번 사업에 큰 힘을 보태주시는 두 금융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도서관에서 신나게 놀자' ... 익산시, 어린이 강좌 운영

모현·영등시립도서관 어린이 대상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22일부터 통합도서관 누리집서 모집

익산시가 새로운 학기 시작에 맞춰 학생들의 사고력·창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모현·영등시립도서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독서 활동과 문화·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준비했다.

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lib.ksan.gov.kr)에서 가능하며 22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이 진행된다.

모현도서관은 초등학생 120명과 6~7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부터 5월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는 △꿈지락 아틀리에 △꿈을 이루어 드림(Dream) △노스쿨데이 △북(BOOK)툼이다.

꿈지락 아틀리에에는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독서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위주의 강좌로 구성됐다. 꿈을 이루어 드림은 메이커 프로그램 및 코딩 교육을 통한 디지털 인제 육성 활동으로 디지털 역량을 즐겁게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실습이 준비됐다.

또한 마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노스쿨데이는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 및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장을 제공한다. 6~7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북돋움은 여러 가지 체험이 마련돼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친근함을 키울 수 있다.

영등시립도서관(영등·부송·유천·금마·황등도서관)은 다음달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15주 동안 도서관

꿈 놀이터를 운영하고 다음달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0주의 과정으로 '어린이 독보리(독서토론통동리)'를 진행한다.

도서관 꿈 놀이터는 영어, 음악, 요리, 공예 등 초등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나야 어린이 공예기 △블록 나라로 놀러와요 △동화 속 미술관 △미술로 배우는 동화 △즐거운 영어교실 등 9개 강좌가 진행된다.

어린이 독보리는 초등학생 1~2학년 을 대상으로 책읽기와 글쓰기, 다양한 독후 창작 연계 활동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저학년 어린이들이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책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접수

군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을 목표로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계란, 유류, 잡곡, 꿀, 두부류, 산양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담당할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영양불균형 해소와 식생활 개선의 기회를, 농가에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신청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총 1만5,867 가구로 해당 가구는 2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받은 농식품 바우처는 지역 농

축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GS25, 농협몰 등 에서 원하는 농식품을 구입 가능하다.

바우처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 가구 기준 월 5만7천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매월 1일 자동으로 충전되며 당일 말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2천원 미만은 이월되며 2천원 이상의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군산=김관곤 기자

군산시,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설문조사 실시

군산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오는 3월 11일까지 20세 이상 군산에 거주하는 군산시민 및 단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연말 군산의 인구가 20만 명이 붕괴 되는 등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결혼·출산·양육과 정주 여건을 비롯한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 등 관련된 4개 분야 1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참여방법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의 QR코드에 접속해 문항에 답변하면 된

다.

관련 이벤트로 온라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 모바일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설문조사 기간 내 기업체, 병원(산부인과, 소아과), 보건소, 어린이공원장, 공동육아 나눔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현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시민의 생각이 담긴 객관화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근거로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시민의 마음을 고스란히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산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4년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추가 모집

군산시는 미취업 대학 졸업생에게 공공기관 행정실무 경험을 제공해 구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참여자를 22일부터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7명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30세 이하의 대학 졸업 미취업청년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을 군산시청 7층 인구대응담당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근무 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10개월이며 시청 및 청년뜰에서 공공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청년뜰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멘토링 교육,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익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용자 지원 26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유도한다.

시는 농촌의 오래된 주택 개량 시 소요 비용에 대한 용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55가구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 또는 동 지역 중 농지지역이며,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 내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용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2억 원, 1억 원에서 각각 5000만 원씩 확대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